

“1000원 지폐 뒷면 겹재 그림은 가짜다”

미술품 감정 비책

이동천 지음



지난 2007년 새로 발행된 1000원 지폐 뒷면에는 겹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그려져 있다. 도산서원 주변 산수를 담은 풍경화로, '퇴유선생진작'(退尤先生眞蹟·보물 제 585호) 2쪽에 걸쳐 실려있다. 그런데 퇴계 이황·우암 송시열의 글과 겹재 그림의 표구 수준이 낮고, 겹재 특유의 산과 바위를 그리는 '준법'(亂石)과 달라 쟁점이 됐다.

'단원 풍속도첩'에 실린 25점의 그림은 모두 단원 김홍도가 그렸을까? 이동천 감정학(鑑定學) 박사는 '서당', '씨름' 등 6점만 '진짜'라고 주장한다. 사방간(四方巾)을 쓰고 당비파를 타는 '포의풍류'(布衣風流)와 파초임을 깔고 앉아 생활을 부는 '월하취생'(月下吹笙)의 경우가 박사는 필획에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물묘사도 정확하지 않음을 들어 위작(僞作)으로 본다.

이동천 박사가 최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미술작품의 진위 감정의 세계를 다룬 '미술품 감정비책'을 펴냈다. 저자는 겹재 정선의 '계상정거도'를 비롯해 국립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에 버젓이 걸려 있는 김홍도의 '묘갈상', 장승업의 '기명절지도' 등 많은 작품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감정학적인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 박사는 중국 서화감정의 최고 권위자(國眼)인 양런커이 선생과 중국 국학 대가인 평치용 선생으로부터 서화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실려있는 겹재 정선의 '계상정거도'. 이동천 감정학 박사는 겹재 특유의 '준법'(산과 바위 표면의 질감)과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기법과 리듬감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감정학과 문헌 고증학을 사사한 미술품 감정학자이다.

저자는 "감정가는 작품에 숨겨진 '태생의 비밀'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며 "작가의 예술세계를 탐구하려면 작품의 진위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다.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짜를 알아야 한다. 작가의 창작습관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한편 그에게 배운 사람과 그를 모사한 사람들의 작품과 비교해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수묵화인 '독화로사도'의 발견부터 화법·글씨를 통해 고려시대 그림임을 증명하

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또한 25년동안 논란이 일고 있는 천경자의 '미인도'를 드로잉 흔적 등 감정학의 논리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과학, 미술사 맥락, 인문학 지식 등이 모두 동원된다. 특히 서화감정에서 과학 기기는 전문 감정가의 지식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인문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종이, 비단, 안료, 낙관, 표구형태 등 그림의 재료로 제작시기와 작품 진위 여부를 알아내는 감정기법도 흥미롭다.

일반인들이 '감상안'(鑑賞眼)을 갖기 위해 서화 감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

야할까? 저자는 우선 작가 한 사람을 정해 도판을 모두 구해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중요한 작품은 직접 보는 것부터 첫 발을 내딛길 것을 권유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서 "한국 미술사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싶다면 먼저 감정가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 미술품을 감정할 후에는 반드시 이름을 남기고 널리 공개하는 '감정가 실명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섭, 천경자, 이우환 등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한국 미술계가 귀 기울여야 하는 고언이다.

〈라이프·4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깊은 백야**=시인 이운학의 아홉번째 시집.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사소한 존재들에 관심을 쏟고 생의 결핍을 성찰적 시선 안으로 끌어들이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운학 특유의 방식은, 5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에서 깊이를 더한다. 십대의 몸, 칠십의 마음이었다 어느덧 칠십의 몸, 십대의 마음으로 살게 된 시적 자아가 기록하는 '늙은 시절'은 영원한 삶의 무덤인 동시에 생명과 감각의 터전이 된다.

〈문학과시상사·8000원〉

▲**공자의 생활난**=김수영과 함께 읽는 논어. 김수영은 논어에 공자론이다. 공자의 생각으로 돌아가 김수영의 시학을 다시 파헤치고 김수영의 상상력으로 돌아가 공자의 사상을 되살려보는 책이다. 김수영이 생각한 제3의 교양세계는 무엇이었을까? 동서의 사상과 전통이 합류하는 현 시대에 우리가 갖게 될 제3의 교양세계는 어떤 것일까? 김수영의 작품세계를 통해 우리 나름대로의 제3의 교양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코리아·2만원〉

▲**백 사람의 심 년**=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 1980년대 중반, 저자인 평지차이가 신문에 문예 경험담을 공모하자 400통이 넘는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편지를 일일이 읽고 그중 수백 명을 직접 인터뷰 했으며, 1986년부터 그 가운데 백 사람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1996년 29편의 글을 모아 중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됐다. 이 가운데 한국어판에는 17편이 실렸다. 〈후마니타스·1만7000원〉

▲**감정 조절**=트라우마 및 심리 치료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권혜경 박사의



책.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비결로 '감정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특히 안전에 취약하며 역사적·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대물림해 온 한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다. 개인이 안전감을 스스로 확보하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울음문화사·1만5000원〉

▲**이만쯤 가까운 중국**=전통 시대부터 시작해 근대 이후 약 50년간 교류가 단절되었던 시간을 복기하고, 개혁 개방 이후 급속히 달라지고 있는 현대 중국의 모습을 폭넓게 담았다. 시장 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샤오미나 알리바바 등 첨단 기업의 부상과 함께 일반공과 소모그 등 중국 경제의 이면 등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각 영역을 두루 살펴본 후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창비·1만3000원〉

어린이 책

▲**동물원이 된 궁궐**=일본에 의해 궁궐의 건물들이 헐리고 급기야는 원숭이와 호랑이 등이 사는 동물원이 되고 말았던 '창경궁'에 관한 이야기다. 임금에 사는 궁궐이 동물원이 되었던 창경궁의 슬픈 역사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 들려준다. 창경궁 전각 곳곳에 얽힌 이야기들까지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꼼꼼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준다. 〈상수리·1만2000원〉

▲**미스 드레이크, 위니를 길들이다**=뉴베리 아너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로렌스 엠과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 조앤 라이더 부부가 함께 쓴 신선하고 기발한 이야기. 미스 드레이크와 위니가 사라진 그림을 찾아 함께 나선 그림 사냥은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재미와 긴장감이 교차하며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씨드북·1만1000원〉

▲**알라리갈라리, 우리말 맞아요?**=일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말을 재미있게 익히



게 하여 아이들이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도록 해준다. 초등학교 4학년인 주인공 은슬이가 학교와 가정에서 다양한 일을 겪으며 우리말을 하나씩 배우나간다. 은슬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중이책·1만200원〉

▲**훈자가 아닌 날**=뉴욕 타임스 올해의 베스트 그림책. 일터에 나간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격정되는 부모들을 위한 그림책이다. 책의 주인공처럼 맞받아치는 부모, 그런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설정이지만, 이 책은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 시기에 자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미디어창비·1만6500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여행 ... 결국 상담과 같더라

여행하는 인간

문요한 지음

휴가철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비단 한국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세계인들에게 여행은 공통적으로 꼽는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다. 인간은 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가? 인간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약 20년간 정



신과외사로 활동해 온 문요한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여행하는 인간(Homo Viator)'을 펴냈다. 일찍이 30만부가 팔린 '굿바이, 게으름'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저자는 어 느날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받는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왜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 행복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오면서 도 정작 본인 행복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었던 문씨는 2014년 8월 스스로 안식년을 선포하고 1년 간의 여행을 떠난다. 첫도착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느꼈던 설렘, 도전의식이 생겼던 안나푸르나. 아르헨티나 엘 찬텐에서는 고독을 느끼고 질레에서는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책은 새로운·휴식·자유·취향·치유·도전·연결·행복·유연함·각성·노스텔지어·전환 등 12개 주제로 여행을 들어

다본다. 저자는 커다란 내면의 변화를 겪으며 여행이 상담과 본질적으로 같음을 깨닫는다.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이 밖으로 떠나는 행위라면 상담은 안으로 떠나는 행위인 것이다.

'케빈 피버'(말실 공포증), '메타노이아'(인생 방향을 바꾸는 마음 변화) 등 저자는 심리적 현상을 몸소 체험하고 설득력있게 들려준다. 여행기는 많지만 여행 자체를 성찰한 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떠나는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해냄·1만4500원〉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맛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맛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맛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한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황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